

#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식과 의향 - 평생학습참여 중심으로 -

Perception and participate intention to HRD among Housewives of the Mid-old aged  
- Focused on the Participate in lifelonglearning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윤미\***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강기정\*\***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course Jun, Yun-mi*  
Dept. of Social Welfare, Backseok University  
*Professor Kang, Ki-j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middle-old aged housewives'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s a par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purposive sampling, the study recruited 163 full-time housewives over age 40 years who live in C City.

As a result, first, 87.1 percent of all respondents, or 142, said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in the futur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cross-checking by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variables.

Additionally, we used cluster analysis to measure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intention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middle-old aged full-time housewives. The perception variable of lifelong learning is: First, Cognitive degree, second, importance, third, activation awareness. Cluster 1(n=16) was divided into generally low-perception types, such as cognitive degree, importance, and life-long learning activation of the C city, while Cluster 2(n=61) was classified as a type of person who thinks that lifelong learning is important to life and Cluster 3(n=86) was generally classified as a type with a higher lifelong

\* 주저자: 전윤미(jym@bu.ac.kr)

\*\* 교신저자: 강기정(kjk@bu.ac.kr)

learning perception, and we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by all cluster

Lastly, we found that participants who valu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measures of cognition than those who did not value it.

Based on these results, we advocates social change that encourages the cultivation of talent through lifelong learning programs that can positively affect one's unique identity, not just wife and mother,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Key Words** : 중노년여성(mid-old age women), 인적자원개발(HRD), 평생학습참여(Participation in lifelongeducation), 인식 및 의향(Perception and participate intention), 전업주부(Housewife)

## I. 서론

최근 저 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현상을 겪으면서 기대수명이 80세를 넘기고 있으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으로서 인적개발이 이슈가 되며, 인적자원인 조직 주도의 경력개발에서 스스로 자기 경력개발의 필요성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Russo, Guo, & Baruch, 2014; 소병한·김지현·송지훈, 2019 재인용). 중노년 성인학습자가 자기 경력개발을 유지 하며 제2의 인생, 황혼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도 중노년층의 평생학습의 참여가 노후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여성 평생학습 참여자의 삶의 질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성진숙, 2010; 정현수, 2010). 여성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평생학습이 더욱 요구되며(남인숙, 2010), 중년여성들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18년 34.8%(만 65~79세 고령자 32.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18).

문재인정부에서도 성인평생학습 활성화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었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중년기 전업주부들이 평생학습에 참여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장선화, 2015), 자신의 인적능력개발을 통하여 자기성장과 나아가 사회적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강민정 외, 2016).

하지만, 국내 여성인력개발 연구는 일 가족 양립 양립과 경력단절여성지원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최성은, 2017), 가사와 양육 등의 역할 수행으로 노동시장참여에 제한을 받고 노동경력이 단절되고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이호숙, 2019)는 설명이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고용기회, 가사와 양육책임, 여성취업의 고정관념 등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아(김경아, 2016), 재사회화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당할 가능성도 크다. 경력단절 여성은 출산과 양육기를 넘어가는 40대 연령층에서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이는 경제 활동 참여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 등 내적욕구의 반영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박성미, 2010). 특히, 중노년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는 가정과 분리된 자신의 사적인 삶과 여가의 욕구가 많아지고(송지연, 2014),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 할 수 있다는 것(김지영, 2014)은 여성 학습자가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

여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이루도록 돕는 평생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여성학습자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김승경·이나영, 2006)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중노년 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차원의 접근을 통해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한 지식, 태도, 능력을 포함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1)중노년 전업주부의 변인별 참여의향은 어떠한가? 2)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식에 따라 참여의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3)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평생학습 참여의향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요구도 파악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노년 전업주부 인적자원 개발

일반적으로 중노년층은 40세~60세 이상에 해당되며, 발달과업으로는 ‘통합’을 이루며(Erik H, 1976) 자신과 주변에 대해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Levinson et al., 1978). 또한 피부양기인 노년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로, 중장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안정된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중노년기가 인생주기의 중요한 단계로 부각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수입과 여가의 증대,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환경과 사회와 직업의 변천 등이다(조경옥·홍성호, 2019).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인 노년기를 현명하고 안정된 노

후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중노년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어머니, 아내 역할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울감을 경험한 한국 여성 중 64.5%가 자살을 생각하며, 특히 전업주부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지지집단을 만들기 어렵고, 정체성 위기, 학습된 무기력감(류종신, 2015)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이화영, 2018).

이처럼 가사와 양육을 전업으로 해오며, 경력 단절을 경험한 중노년 여성이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함과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성찰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나아가 사회적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협받는 중노년 시기에 사회 경제적은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문화센터나 복지시설 등의 교양 교육이 대부분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황승희·김혜연, 2014).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증가하며 여성 인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대책 마련이 강해지고 있으며,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도 주목받고 있다(최윤정 외, 2016). 또한, 단순한 지식습득 뿐 아니라 사회 적응과 정보 공유에 참여하여 사회일원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중년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정현수, 2010), 이 시기에 여성은 가족위주의 한정된 관계망에서 나아가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이민영·이유우·한주희, 2015). 이와 같이, 중노년 여성학습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삶의 질은 노후를 준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김동배·정규형·이은진, 2012), 노후준비에 있어서, 삶의 만족에 조건이 되는 긍정적 사고와, 태도, 대인관계가 필요하며, 중노년기에는 일, 여가활동, 사회활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정영자, 2011).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주부집단은 여성사회교육과 여성평생교육 개념과 관련성이 크다(김선미·이기영, 2002).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직업훈련기관들의 교육과(최유연, 2019), 여성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 여성의 인간화와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평생교육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범주이며, 이에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공유와 사회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중노년층 평생학습 참여 선행연구

평생학습은 1965년 12월에 프랑스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성인교육추진위원회(International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Paul Lengrand의 ‘평생교육에 대하여’라는 논의를 통하여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다(차갑부, 2014). 우리나라는 1973년 평생교육발전세미나를 통해 우리사회에 사회교육(social education)라는 용어로 시작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은 총 5,181개소이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40.6%나 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2002년 인적자원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육성과 활용’이라는 정책목표 시행이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증가되었고(우무희, 2017), 여성의 평생학습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참여율은 남성39.5%에 비해 여성42.9%로 3.4% 높게 나타나며(평생교육통계, 2018), 중노년 여성들의 참여 비율 또한 2012년 35.6%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평생학습 참여는 개인의 역할,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 하여(윤혜림, 2019),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이 사회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함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아왔던 여성들에게 있어 평생학습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송은주, 2011).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성인학습자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실시 시 학습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박은희, 2017).

정미경(2009)는 중년 여성이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삶에 의미나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 성인학습자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의 의미와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개인, 가정생활, 사회적관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었다(김혜숙, 2003).

이운해(2018)는 중노년층 개인적 특성, 라이프 스타일, 취미레저 O2O서비스 이용의도, 삶의 질에서 대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페이스북·트위터 이용자와 하루30분 이상 소셜미디어 사용그룹, 취미레저 체험그룹 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건강추구와 여가문화 및 외향적 도전추구 그리고 안전 및 물질추구, 개인적 특성의 자산민감성과 신뢰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노년층의 평생학습의 참여 동기가 노후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으며(두경실, 2017), 중년의 전업주부의 인문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선화, 2015).

이렇게, 평생학습참여는 중노년기 주부들의 인적 자원개발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주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생학습참여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특성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서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18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C 지역의 40세 이상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On-line, Off-lin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00부 중 163부를 최종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163명 중 40대~50대 미만이 50% 넘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

원 이상이 58.9%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65.7%로 나타났다.

#### 2. 자료분석

지역사회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의 인식과 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서의 평생학습 참여의향과 계획이 있으면 1, 아니면 0인 변수이다.

개인변인, 인식, 실태 변인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독립변인으로는 개인변인과 인식으로 하였다. 개인 변인은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구성하였으며, 인식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평생학습에 대해 잘 모르며 관심이 없다’는 4, ‘평생학습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3, ‘평생학습에 대해 알고 있다’는 2, ‘평생학습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 값을 부여하였다. 중요도 요인은 평생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에 ‘중요하지 않다’는 4, ‘별로중요하지 않다’는 3, ‘중요하다’는 2, ‘매우중요하다’는 1값을 부여하였다. 활성화 정도는 지역의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전체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세 이상 - 50세 미만	83	50.9
	50세 이상 - 60세 미만	54	33.1
	60세 이상 - 70세 미만	22	13.5
	70대 이상	4	2.5
학력	고등학교 졸업	34	20.9
	대학 졸업	33	20.2
	대학원 졸업	96	58.9
직업	전업주부	163	100
월 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4	14.7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	6.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1	12.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2	31.9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2	25.8
	1,000만원 이상	13	8.0
	총 계	163	100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었으나 ‘전혀활성화되지 않았다’에 4,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에 3, 어느정도 활성화 되었다’에 2, ‘매우활성화되었다’에 1값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실행하되 먼저, 변인간의 다른 평생학습 참여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X<sup>2</sup> 와 월콕슨의 합을 분석한 후, 평생학습의 인식변인을 군집분석 하였다. 군집별 참여의향의 차이를 ANOVA를 통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참여 의향에 영향력을 위해 변수들 대상으로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기방정식은 투입 변인의 평생학습 참여의향의 설명력 탐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평생학습인식 및 참여의향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person 적률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간의 다른 평생학습 참여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명목변수는 독립표본 T-test로 하고, 순서변수는 독립표본 K-검정 월콕슨의 합으로 하였다.

셋째, 평생학습인식을 위계적군집분석과 K군집분석 후, 군집별 참여의향 차이검정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중노년 전업주부에 인적자원개발의향은 평생학습 참여 의향 있음/없음과 같은 이분 형 (dichotomous variable) 종속변수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차이에 대한 검증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에서 실시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평생학습 참여의향	1=있다. 0=없다.
독립변수	연령(40세 ~ 70세이상)	
	개인 학력	1=고졸, 2=대졸(전문대포함), 3=대학원이상
	변인 직업	전업주부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인식	평생학습 인식	평생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시의 평생학습 활성화 인식 정도

〈표 3〉 중노년 전업주부의 분석대상 기술통계

구분	구분	n	최소	최대	M	SD
종속변수	평생학습 참여의향	163	1.0	2.0	1.129	.3360
	연령	163	3.0	6.0	3.675	.8003
개인 및 가구 요인	학력	163	1.0	3.0	2.380	.8105
	직업(전업주부)	163	1.0	1.0	1.000	.0000
	월 평균 소득	163	1.0	6.0	3.712	1.4937
독립변수	평생학습 인지 정도	163	1.0	4.0	2.049	.8945
	평생학습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63	1.0	4.0	1.626	.7624
	시의 평생학습 활성화 인식 정도	163	1.0	4.0	2.374	.7942

※ 사례수=163, 순서변수 ‘매우 그렇다(1점)’, ‘다소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 연령 ‘40~50세(3)’, ‘50~60세(4)’, ‘60~70세(5)’, ‘70세 이상(6)’

## IV. 분석 결과

시의 평생학습 활성화 인식정도이다.

### 1. 분석대상 기술통계

〈표 3〉은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참여 영향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기술통계분석으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대상은 중노년 전업주부로 연령에 40세 이상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로 응답한 순으로 연령의 3은 40세~50세이며, 6은 70세 이상을 나타낸다. 인식에서는 평생학습의 인지 정도, 평생학습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2.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의향

#### 1) 변인별 참여의향 차이

향후 평생학습에 참여의향이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87.1%인 142명이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배경변인별로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 4〉 개인배경변인별 평생학습 참여 의향

구분	참여의향			X <sup>2</sup> (df)
	있다	없다	총계	
연령	40세 이상-50세 미만	72(86.7%)	11(13.3%)	3.875 (3)
	50세 이상-60세 미만	50(92.6%)	4(7.4%)	
	60세 이상-70세 미만	17(77.3%)	5(22.7%)	
	70대 이상	3(1.8%)	1(0.6%)	
학력	고등학교 졸업	28(17.2%)	6(3.7%)	2.566 (2)
	대학(전문대)졸업	87(53.4%)	9(5.5%)	
	대학원 이상	27(16.6%)	6(3.7%)	
월 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20(14.1%)	4(19.0%)	1.761 (5)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7.0%)	1(4.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7(12.0%)	4(19.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7(33.1%)	5(23.8%)	
	500만원 이상	48(33.8%)	7(23.8%)	
전체	142(87.1%)	21(12.9%)	163(100%)	

p < .05

〈표 5〉 변인별 평생학습 참여 의향

구분	참여의향				
	Mann-Whitney U	윌콕슨 W	Z	p	
개인변인	연령	1405,000	11558,000	-.468	.640
	학력	1219,500	1450,500	-1.524	.127
	월평균소득	1407,000	1638,000	-.428	.669
	직업(전업주부)	1491,000	1722,000	.000	1,000
인식	교육만족도 중요요인	1377,000	11530,000	-.606	.545
	평생학습 인지 정도	950,000	49503,000*	-2.854	.004
	평생학습 중요 정도	1143,000	11296,000	-1.924	.054
	시의평생학습 활성화인식	1139,500	11292,500	-1.872	.061

p < .05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집단에서 참여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있다 '92.6%, 없다'7.4%). 한편 학력별로는 대학(전문대)졸업 집단에서 참여의향(있다 '53.4%)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집단이 참여의향(있다' 33.8%)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평생학습에 참여의향이나 계획이 있는 가리는 질문에 순위척도 인 인식변인을 월복순W로 의미 있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순위 변인별로 Mann-Whitney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인식에서 평생학습인지정도(W=49503.000,  $p < .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  검증에서와 같이 배경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배경변인별로 참여의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평생학습인식(인지정도, 중요도, 활성화인식) 정도와 참여의향 차이**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식에 따라 참여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종속변수 사

이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인적자원 개발의 평생학습인식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단계에서 이단계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세 개의 군집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각 군집 평균을 중심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 의향의 영향 요인 분석과 관련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x1(평생학습인지정도), x2(평생학습의 중요도), x3(시의 평생학습활성화 정도), x4(연령), x5(학력), x6(월평균가구 소득)

상관관계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높아지는데, 평생학습의 중요도( $r = .489, p < .01$ ), 평생학습 활성화 정도( $r = .296, p < .01$ )순으로 평생학습인지정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력과 월평균가구소득( $r = .479, p < .01$ )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에서와 같이 평생학습인식변인을 군집 분석하여 3가지 세부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군집 1(n=16)은 인지정도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시의 평생학습 활성화정도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유형의

<표 6>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변인	x1	x2	x3	x4	x5	x6
x1	1					
x2	.489**	1				
x3	.296**	.141	1			
x4	.040	.022	-.021	1		
x5	-.060	-.118	.036	-.113	1	
x6	.011	-.025	.050	-.053	.479**	1

$p < .05, **p < .1$

<표 7> 최종군집별 중심점

군집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n=16)	(n=61)	(n=86)
		전반적 낮은 인식	중요하다는 인식	전반적 높은 인식
평생학습 인식	인지정도	3.5	2.1	1.7
	중요정도	3.1	1.4	1.5
	활성화정도	3.0	3.1	1.8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2(n=61)는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높게 인식하는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3(n=86)은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인식이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 되었다.

각 군집별 평생학습 참여 의향의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결과 <표 8>과 같이  $F(2, 162)=1.636, p=.198$ 로 평생학습인식별 군집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참여 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군집별 평생학습 참여의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 3.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미치는 요인

<표 9>은 지역사회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 개발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평생학습에 참여 중인 성인학습자의 중노년 전업주부들의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는 .139로 13.9%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노년 전업주부의 연령, 인지정도, 중요정도 변수를 투입한 모형적합성 Hosmer-Lemeshow검정 결과 .491로 0.0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귀무가설인 “예측하고 있는 모델값과 관측값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현재의 모델이 적합하다 할 수 있으며( $X^2 7.433(p=.000)$ ), 분류정확도는 74.3%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요인 중에서는 인지정도( $\beta=.728, p<.05$ )가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에 유의

<표 8> 군집별 평생학습 참여의향 차이

종속변수	구분	SS	df	MS	F	p
평생학습 참여의향	집단간	.367	2	.183	1.636	.198
	집단내	17.928	160	.112		
	합계	18.294	162			

$p<.05$

<표 9>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구분	$\beta$	S.E	p	Exp(B)	
개인 요인	연령	.157	.288	.585	1.170
	학력	-.440	.338	.193	.644
	월평균가구소득	.042	.183	.819	1.043
평생학습 인식	인지정도	.728*	.307	.018	2.070
	중요정도	-.070	.323	.829	.933
	활성화정도	.322	.336	.337	1.380
상수	-4.092	1.858	.028	.017	

모델요약(n=163)

-2로그 우도 =112.630<sup>a</sup>

$R^2 = .139$

$X^2=7.433(df=8), p=.491$

\*종속변수: 참여의향, <sup>a</sup> $p<.05$ , <sup>b</sup> $p<.01$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단계가 높은 것도 참여의향의 증가에 0.728배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식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생학습 참여 중심으로 분석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전업주부의 인적자원 개발활성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을 전업주부로 한 것은 취업주부 여성은 비교적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 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전경숙·정태연, 2012). 또한 선행연구 등에서 사회적 지지자원의 취약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강희숙·이춘희, 2017). 이에,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중노년 성인학습자 및 시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향후 평생학습에 참여의향이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87.1%인 142명이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배경변인별로  $\chi^2$  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집단에서 참여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있다 '92.6%, 없다' 7.4%). 한편 학력별로는 대학(전문대)졸업 집단에서 참여의향이(있다 '53.4%)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집단이 참여의향(있다' 33.8%)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평생학습에 참여의향이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순위척도 인 인식변인을 윌콕슨W로 의미 있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순위 변인별로 Mann-

Whitney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인식에서 평생학습인 지정도( $W=49503.000$ ,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 검증에서와 같이 배경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평생학습에 대해 잘 알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배경변인별로 참여 의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 인식에 따라 참여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생학습인식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군집 분석을 통해서 세 개의 군집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각 군집 평균을 중심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 $n=16$ )은 인지정도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시의 평생학습 활성화정도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2( $n=61$ )는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높게 인식하는 유형의 집단으로, 군집 3( $n=86$ )은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인식이 높은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별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로 분석한 결과  $F(2, 162)=1.636$ ,  $p=.198$ 로 평생학습인식별 군집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참여 의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서의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정 한 결과 유의수준은 요인 중에서는 인지정도( $\beta=.728$ ,  $p<.05$ )가 중노년 전업주부의 평생학습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단계가 높은 것이 참여의향의 증가에 0.728배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과 참여도와 관련이 있으며(임정임, 2016),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연령에서 50-60세가 42.8%로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취업주부였던 분들이 은퇴하였거나 자녀는 취업, 혼인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가

생활이나 자기개발, 친구나 이웃 등과 다닐 수 있는 시기인 이유로 보이며, 이는 중노년층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가 노후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 참여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 평생교육 만족과 성공적 노후간의 관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신정례·곽종형, 2018)을 볼 때, 인적자원개발로서의 평생학습 참여가 노후 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아짐은 평생학습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중노년층을 겨냥한 홍보 및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동시에 공동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 내에서 관, 산, 학, 시민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상호작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노년 전업주부는 복지나 돌봄 대상이 아닌 생산자로 분류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적 자본을 증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람들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건강한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서명희, 2018).

따라서, 전업주부의 역할이 아내와 어머니로만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네트워크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적 참여를 구성요소로 한 사회적 자본개념을 포함하며,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이석잔·이승진, 2018). 이렇게 중노년 전업주부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이 제공된다면,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중노년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과 지역적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집이 대학원이상 고학력여성이 많았기에 대한 의미와 추후 희망 교육 분야나 참여 동기, 사회기여 등의 전업주부의 인적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민정·권소영·임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소기업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경력개발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 강희숙·이춘희(2017). 중년여성의 정신 심리적 요인에 아로마테라피가 미치는 효과-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인문사회21, 8(1), 757-774.
- 3) 김경아(2016).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방안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9(2), 93-113.
- 4) 김동배·정규형·이은진(2012).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32(3), 801-817.
- 5) 김선미·이기영(2002).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한국생활과학회지, 11(1), 1-18.
- 6) 김승경·이나영(2006). 학제 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1), 35-76.
- 7) 김지영(2014).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주의 인식전환 경험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혜숙(2003).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남인숙(2010). 여성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 여성의 변화. 사회이론, 38, 67-97.
- 10) 두경실(2017).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노후생활만족도 예측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류종선(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고독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원과 학습된 무기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진한엠앤비.
- 13) 박성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형태에 따른 진로행동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65-179.
- 14) 박은희(2017). 평생학습 참여가 여성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서명희(2018). 평생학습의 사회적 자본 형성 연구 : 평생학습도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성진숙(2010).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소병한 · 김지현 · 송지훈(2019). 프론티언 경력의 통합적 개념모형개발. HRD연구, 21(2), 87-117.
- 18) 송은주(2011)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송지연(2014).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신정례 · 곽종형(2017).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1(1), 131-150.
- 21) 이민영 · 이유우 · 한주희(2015). 문화예술 활동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웰빙: 스트레스와성격의 조절적 매개역할. 여가학연구, 13(4), 1-24.
- 22) 이석진 · 이승진(2018) 평생교육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연관성 분석. 평생학습사회, 14(01), 71-100.
- 23) 이운해(2018). 중장년층 라이프 스타일이 O2O 서비스이용의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이호숙(2019).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이화영(2018). ‘그림책 코칭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6) 임정임(2016). 평생학습도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지자체 실무자와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 광명시와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우무희(2017). 중장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윤혜림(2019). 비형식교육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장선화(2015). 중년기 전업주부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문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전경숙 · 정태연(2012). 한국사회 중년기 전업주부의 삶의 재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19-44.
- 31) 정미경(2009)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5(1), 127-154.
- 32) 정영자(2011). 울산광역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생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2(4), 155-184.
- 33) 정현수(2010).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조경옥 · 홍성효(2019). 지방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준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4(3), 419-435.
- 35) 차갑부(201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36) 최성은(2017). 무엇이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어렵게 하는가. 페미니즘연구,

- 17(1), 145-192.
- 37) 최유연(2019). 기업체 여성인력의 경력역량 측정도구 개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8) 최윤정 · 정해숙 · 장희영 · 이현주(2016).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016(-),1-318.
- 39)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보도(2018.12.13). 한국의 사회동향 2018.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bmode=read&aSeq=372007](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bmode=read&aSeq=372007)
- 40) 평생교육통계(2018). 교육통계서비스, 테마통계, 주요지표, 평생통계. <https://kess.keci.re.kr/index>
- 41)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 42) 황승희 · 김혜연(2014).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73-87.
- 43) Levinson D. J., Darrow C.N., Klein E.B., Levinson M.A. & McKee B., (1978)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 44) Erik H. Erikson.(1976). Life History and Historical Moment, New York : W. W. Norton & Co., 127-129.
- 45) Rossen, E. K., Knafl, K. A., & M. Flood(2008). Older Women's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2(2), 73-8.
- 46) Russo, M., Guo, L., & Baruch, Y. (2014). Work attitudes, Career success and health: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투 고 일 : 2019년 12월 24일
- 심 사 일 : 2020년 01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0일